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역대 8월 중 최대실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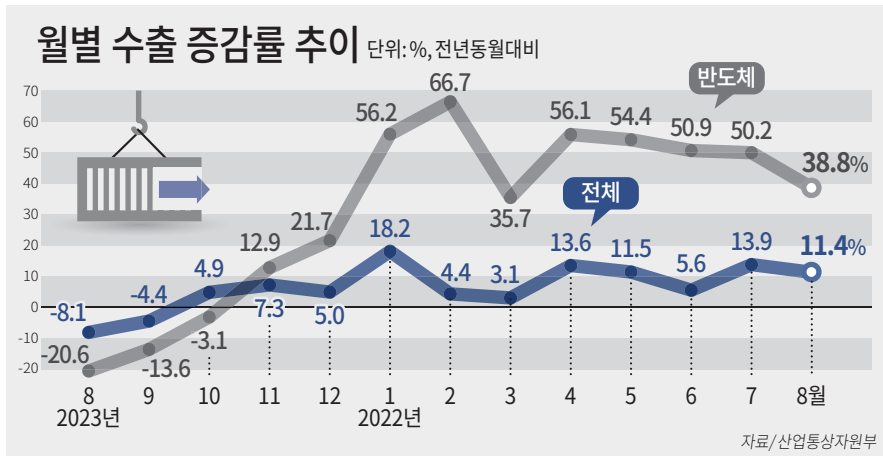
산업부, 수출 579억 달러 11.4% ↑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38.8% 상승

자동차 수출 50.7억 달러 4.3% ↓
선박 28.4억 달러, 플러스로 전환

올해 8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지며,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7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증가하면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조업일수 0.5일(평일기준 1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8% 증가했다.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



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183% 증가한 15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50.4% 증가한 1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5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4.3% 감

소했다. 선박 수출은 2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위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7.9%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은 11.1% 증가해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 달러를 기록,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6.1%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최대치인 2021년 3월 63억 달러를 41개월 만에 경신했다.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ASEAN) 수출은 1.7%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인도(2.3%, 16억 달러), 일본(6.8%, 25억 달러), 중남미(29.4%, 26억 달러)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4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

역수지는 38억3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6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3배 수준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쿄 한류박람회', '하반기 수출법포럼 코리아'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校學大麗高
證生學

姓名 徐正玉

No. 2

고미래

20251905
자유전공학부

Name Mirae Ko

Mirae Ko

고려대학교

민족의 리더를 키워온 120년 | 인류의 리더를 키워갈 120년

The Next Korea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4. 9. 9 (월) ~ 9. 11 (수)
- 세종캠퍼스 : 2024. 9. 9 (월) ~ 9. 13 (금)
- 접수처 : oku.korea.ac.kr

한화·두산 등 7개 기업집단 친족 등에 자사주 지급 약정

한화와 두산 등이 총수(동일인) 또는 친족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정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재직시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 19명에게 총 22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했다.

공정위,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 한화·에코프로, 총수 2세 RSU 약정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등 우려돼 모니터링 계속... 위반시 엄정대처"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의 경우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 미래전략본부장,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한화의 RSU 약정은 부여주식의 50%를 추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급은 10년, 기타 임원은 7년의 가득기간을 설정했다. 에코프로의 가득요건은 지급 시점 재직사이다.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화는 저성가나 중장기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에코프로는 중대한 성과 손실에 따른 주식 지급 취소규정을 뒀다.

정보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가득조건 설정에 대한 규제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시하며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RSU 지급 대상의 절반 가량은 사원으로 임직원에 지급한 것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총수 2세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과 국외 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 등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1.1%,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71곳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또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4개 집단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고, 총수 있는 49개 집단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총수일가의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정보공정위 과장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